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 달과 손가락



베타니아 마을에 사는 마르타와 마리아의 오빠인 라자로가 병에 걸려 곧 죽게 되었다는 소식이 예수님께 들려왔습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는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보면, 예수님과 이 세 남매의 관계가 특별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라자로가 죽고 나서야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십니다.

이 특별한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적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 같다는 마음입니다. 우연히 찾아간 마을에서 만난 소경, 백인대장의 딸, 이방인 어머니 등등 예수님과 특별한 인연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이라면, 우리는 큰 분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에서 기적의 대상이 된 가족은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을 받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은 라자로의 죽음에 마음이 산란해지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셨습니다. 평소에 사람을 보고 가여워하는 마음을 자주 표현하셨던 예수님이시지만, 이 남매가 특별히 사랑받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꼭 특별대우를 받는 것 같다는 분심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하지만 기적은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선택받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라자로가 병에 걸려 고통스러워 할 때, 그리고 죽었을 때에도 끊임없이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일어난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그 기적을 통해 드러나신 하느님께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지금 내가 예수님이 하느님이심을 믿을 수 있으면, 이 라자로처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몸으로 구원받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손으로 달을 가리켜 다른 사람에게 보인다면, 그 사람은 손가락을 따라 당연히 달을 보아야 한다. 그런데 만약 그가 손가락을 보고 달의 본체로 여긴다면, 그 사람이 어찌 달만 잃은 것이겠는가, 손가락도 잃어버린 것이다.’ - 능엄경

능엄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구구절절 해석하면 어려워지겠지만 단순하게 본다면, 오늘 복음에서 캐낸 메시지를 더 잘 알아듣게 도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적에 환호합니다. 기적이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하느님께 집중되어있기 보단, 기적이 일어난 목적이나 기적을 일으킨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기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여 물의를 빚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적에 대한 그릇된 관심이 달도 잃게 하고 손가락도 잃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에게서 최고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위대한 왕이 가장 어리석고 약한 모습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는 기적을 통해 일어나는 하느님께 집중하고, 이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기적을 오해케 하는 분심을 거두어 내고, 그 기적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을 바라봅시다.

송현동 본당 보좌 김지성 안토니오 신부



## 전례

### 입당 전 안내

교형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 제5주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 죽음을 생명으로 돌려놓으시는 하느님의 권능을 만납니다. 일상에서부터 작은 죽음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새 생명을 만날수 있습니다. 사순시기의 은총이 내 삶의 모습을 새롭게 하고 있는지 돌아볼 때입니다. 죽음을 새로운 희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미하며 이 전례에 참여합시다.

**입당성가 :** 118번 ‘골고타 언덕’

### 본기도

† 주 하느님, 성자께서는 죽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주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도 그 사랑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제1독서 : 에제키엘 예언서 37장 12절-14절

**안 내 :** 주님은 당신 백성을 살리시고자 당신 영을 넣어주십니다.

**묵 상 :**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늘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더욱 큰 사랑을 주시어 다시 살리시고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화 답 송 :**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제2독서 : 로마서 8장 8절-11절

**안 내 :** 예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묵 상 :** 예수께서는 죽음에서 새 생명을 받으심으로써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느님을 더욱 깊이 깨달아 그분 성령 안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복음환호송 :**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यो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 음 :** 요한 11장 1절-45절

---

**강 론 :** ‘달과 손가락’(1-2쪽)

**예물준비성가 :** 513번 ‘면병과 포도주’

**영성체성가 :** 166번 ‘생명의 양식’

**영성체 후 묵상**

세상에 태어나고 이름이 지어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나를 가두는 벽이 허물어진 것도,  
내가 다른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침묵>

하느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나는 벽을 뚫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 안에 살았던 사람임을 일깨우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십니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공지사항**

**파견성가 :** 119번 ‘주님은 우리 위해’

**※ 공소사목 성금**

박기섭님	10,000원	김민재님	30,000원
최순임님	3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2,28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해 주세요.



## 알 림

### ■ 우곡성지 미사 안내

####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 신설)

- 주일 오전 11시, 평일과 토요일 오전 7시 단, 매월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 오전 11시
- 순례단 요청시 상시 미사 가능
-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는 3월부터 봉헌합니다.
- 매월 넷째 주일은 우곡성지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입니다.
- 개인, 단체 피정이나 미사 신청 문의는 상시 접수.
- 문의 : 054-673-4152 FAX 054-673-7094

### ■ 2017년 열린 성경 강좌 2

- 일시 : 4월 10일(월) 19:3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주제 : 루카 복음 2
- 준비물 : 신,구약 성경
- 참가비 : 1인 2,000원
- 강사 : 함원식 신부(영덕 본당 주임)

### ■ 주님 만찬 성 목요일 성유축성미사

- 일시 : 4월 13일(목) 11:00
- 장소 : 목성동 주교좌 성당
- 준비물 : 장백의, 백색영대, 성유그릇

### ■ 제2차 가나혼인강좌(혼인 전 교리교육)

- 일시 : 5월 20일(토) 13:00 - 18:00
- 장소 : 교구청
- 참가비 : 1인 1만원(2인 2만원)
- 대상 : 혼인을 준비 중인 남녀  
(함께 참석해야 함)
- 신청 : 5월 18일(목)까지  
사목국으로(858-3114~5)

### ■ 2017 수취페 도미네 생활성가 음악피정

- 4월 2일(주일) 19:30 영해성당
- 5월 14일(주일) 19:00 공검성당

### ■ 교구장 사목방문 일정 안내

- 4월 23일(부활 제2주일) : 영덕 본당
- 4월 30일(부활 제3주일) : 서문동 본당 (견진성사)

### ■ 제27회 한국 가톨릭 매스컴상 공모

- 응모대상 : 가톨릭신자, 타종교신자, 비신자
- 2016년 7월 1일 ~ 2017년 4월 30일까지 제작발표한 작품
- 문의 : 02-460-7626

### ■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모임

- 일시 : 4월 8일(토), 9일(주일) 14:00
- 장소 : 부산 부곡동 본원
- 문의 : 010-9319-1690

### ■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재개봉

- 끝없는 사랑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서 보낸 마지막 12시간
- 전 세계 역대 종교영화 흥행 1위
- 일시 : 4월 13일(목)
- 전국 CGV 관람 가능
- 문의 : 070-4452-2879

### ■ 작은형제회 40차 이스라엘 순례

- 일시 : 7월 15일 - 23일 (8박 9일)
- 문의 : 010-5607-2046, [www.terrasanta.kr](http://www.terrasanta.kr)  
이스라엘성지한국대표부(프란치스코회)

---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 (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 제 4장

#### 혼인의 사랑

##### 평생 함께하는 삶

123. 우리를 하느님께 일치시키는 사랑 다음으로 부부 사랑은 “가장 훌륭한 우정”입니다. 부부 사랑은 좋은 우정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결합입니다. 이 특징에는 상대방의 행복의 추구, 상호성, 친밀함, 온유함, 견고함 그리고 함께 사는 친구 사이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혼인은 이 모든 것에 불가해소적 배타성을 더하는 것으로 모든 삶을 함께 나누고 만들어 가겠다는 굳건한 서약으로 표현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 본질의 표징들을 깨닫도록 합시다. 사랑에 빠지는 이들은 자신들의 관계가 일시적인 것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혼인의 기쁨을 강력하게 체험한 이들은 그것이 그저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혼인성사로 결합된 이들은 그 사랑이 비록 깨어지기 쉬운 것이어도 평생 동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신의를 지키며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과 또 다른 유사한 표징들은 부부 사랑의 본질이 궁극성에 열려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혼인 서약으로 늘 견고한 모습을 지니게 된 결합은 전통이나 사회적 절차 이상의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이는 하느님 앞에서 드리는 약속입니다. 이는 신의를 필요로 합니다. “내가 배신한 젊은 시절의 네 아내와 너 사이의 증인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고 너와 계약으로 맺어진 아내이다. …… 젊은 시절의 아

---

내를 배신하지 마라. 정녕 나는 아내를 내쫓는 짓을 싫어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말라 2,14-16).

124. 사랑이 약하거나 병들어 있어, 혼인을 싸워서 쟁취하고 거둬나게 하며 새롭게 하고 늘 다시 시작하여야 하는 평생의 도전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러한 사랑은 드높은 서약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끊임없는 성장 과정을 방해하는 일시적인 문화에 굴복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발견할 때에 가능합니다. 그 계획은 지탱해 주며, 자신의 미래를 사랑하는 이에게 온전히 내어 줄 수 있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모든 것에 맞서서 충실한 것이 되려면, 그 사랑을 강화하고 드높여 주는 은총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로베르토 벨라르미노 성인의 말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배타적이며 불가해소적인 관계로 하나가 되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심지어 자녀를 낳을 희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헤어질 수 없다는 사실은 위대한 신비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125. 혼인은 열정을 특징으로 하는 우정이지만, 이러한 열정은 언제나 훨씬 더 안정적이고 강한 결합을 지향합니다. “혼인은 출산만을 위하여 세워진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상호 사랑이 “올바르게 표현되고 또 진보하고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특별한 우정은 부부 결합 안에서만 존재하는 포괄적인 특징을 지닌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결합이 포괄적인 것이기에, 배타적이고 충실하며 새 생명에도 열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합된 부부는 언제나 상호 존중으로 성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함께 나눕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단언하였습니다. “인간적인 사랑과 신적인 사랑을 결합시키는 이러한 사랑은 부부가 자유로이 서로 자기 자신을 내어 주고 이를 다정한 마음과 행동으로 드러내도록 이끌어 주며, 부부의 온 삶에 스며든다.”

- 다음에 계속 -



살림터 이야기

## 봄나들이

정규석 프란치스코  
(안동가톨릭문인회)

노란 산수유 꽃이 한창 꽃망울을 터뜨리던 2년 전 3월에, 예수의 성녀 데레사 탄생 500주년을 기념하는 미사가 있어 상주에 있는 가르멜 여자수도원을 찾았다. 봉쇄수도원이라 평상시엔 접근조차도 어려운 출입금지구역이었기에 찾는 감회가 남달랐다.

수도원은 산 중턱에 있었는데 범인의 눈으로 보기에 결코 좋은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도원이 자리 잡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명당이 된 것 같았다. 수도원 건물의 입구는 서향이었고 수녀님들이 생활하는 공간은 남향으로 지어졌지만 바람이 많아 3월 하순이긴 해도 한기가 느껴졌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수도자들은 많아야 15명을 넘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워낙 청빈한 생활을 하는 분들이라 여름과 겨울에 냉·난방 없이 지내려면 고생이 심할 것 같아 걱정이 되었다. 동행한 수녀님이 수도원 인원은 제한되어 있고 자체수입도 없어 무척 검소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 내 걱정이 기우는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생활하는 목적이 우리와 다른 수도자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남다른 보람과 행복이 있을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니 그분들의 차원 높은 정신세계가 부러웠다.

그 작은 수도원에 설립이후 최대 인원 700명이 모여 기념미사를 드리고 수도원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감상한 후 식사시간을 가졌다. 식사를 마치고 처음으로 개방된 수도원이 궁금해서 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봉쇄수도원답게 육중한 철문과 쇠창살로 막힌 수도원 구역과 일반신자들이 미사를 볼 수 있는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함께 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대의 방향이 양쪽의 중간을 향해 놓여있었다.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철문은 열려있었지만 선뜻 들어가기가 뭐해서 망설이고 있는데 거기에서 생활하는 수녀님이 먼저 들어와 보라고 권해서 귀한 곳으로 들어갔다. 그곳에 특별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소박하고 작은 나무의자만 벽 쪽에 나란히 놓여있었는데 미사를 드리고 기도 할 때 사용하는 것 같았다. 바닥이 의외로 따뜻해서 “방이 훈훈하니 좋네요.”했더니 “오늘은 특별히 손님들이 방문하신다고 일부러 데웠어요.”하시는 수녀님의 얼굴이 어찌 그리도 해맑고 선해 보이는지 내 마음까지 따뜻해졌다. 수녀님은 아마도 이렇게 봉쇄수도원이 개방되는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이라고 그만쯤 오늘은 특별한 날인데 많이 와줘서 고맙다는 인사도 잊지 않으셨다.

귀하게 열린 문을 통해 수녀님들의 희생적인 삶의 모습과 순박한 미소를 보고 나니 평소에 그분들을 위해 기도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어 미안한 마음부터 들었다. 일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수도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터인데 어떻게 그곳에서 생활하는 수녀님들의 얼굴에 그토록 아기 같은 순수함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는지 나는 잘 알지 못한다. 다만 수도자들의 기도가 늘 밖으로 향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웬지 하느님이 그분들의 기도에는 확실히 응답해주실 것 같았다. 그동안 받는 데에만 익숙한 내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분들의 삶이 고결하고 의미 있게 보였기 때문일까? 세속에 찌든 내 영혼과 육신이 조금은 정화된 것 같아서 수녀원 다녀오는 길이 즐거운 봄나들이가 되었다.